

수많은 별들이 내려와 만들어진 운주사(雲住寺) 천불천탑(千佛千塔)

전라도 화순 동면이 고향인 나는 까마득히 어린 국민학교3학년(1976년쯤) 어느 봄날(아마도 농사가 시작되기 전의 이른 봄으로 생각된다) 마을에서 버스를 빌려 단체여행을 한적이 있는데, 여행 중 버스에서 졸다가 내린 곳이 운주사였다. 차에서 내려 고불고불 들어가다 계곡논두렁에 이르러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불상과 탑들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천상의 계곡에서 천사들이 돌로 조각하다 형상이 어긋나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버린 돌조각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린 나의 검회색눈동자에는 어찌나 신비롭고 아름다웠던지 한참동안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나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광주에 있는 미술대학에 들어가 놀면서 친구들과 가끔씩 소풍을 갔는데, 방향하는 짧은 날의 벽찬가슴을 어찌하지 못해 낫술로 보냈던 곳 또한 운주사였다. 광주 대인동에 있는 터미널에서 아침에 버스로 출발하면, 지나가는 온갖 동네는 다 정차하고 꼬박 만나절을 달려 운주사 입구에 도착한다. 입구에는 막걸리와 간단한 먹을거리가 있었고, 어디서부터랄 것도 없이 입구도 없는 운주사 길은 잘 빛은 막걸리와 함께 1000년을 한적하게 같이 텅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런 운주사의 기억은 온전히 나의 인생과 같이 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신비의 불빛을 간직하고 내가가고 있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지금의 운주사는 오솔길이 신작로로 바뀐 것처럼 새롭게 정비되어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변했지만,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선명하게 뒤바뀐 그때의 풍경으로 다가 온다.

늦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형상을 표현한 것 또한 운주사의 흔적들이다. 마음속에 있는 운주사를 표현한 덕분에 2008년 프랑스 후양시 센마리팀(한국의 도의회)의회 미술관에서 개인전도 초대받게 되었다.

지금도 나에게 운주사는 아늑한 안식처이며 세상의 잡일들로 혼란 할 때 그곳에 가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세상위에 떠있는 평온한 별빛이며, 거센파도와 폭풍이 휘몰아칠 땐 흔들리지 않고 길을 비추는 등대이다.

지금까지 운주사를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으로 신비함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여기 지면에 발표하게 될 그림들은 20여년을 고심하며 만들고 있는 것들이다.

아래는 운주사를 그린 그림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에 소리의 두께를 보다

운주사에 갔다. 찬란했던 시절 절반의 人爲가 세월이란 짝을 만나, 온 것의 자연으로 가는 찰라 사이의 신비, 사물을 자연에 맡긴 대신 인위는 자연의 령을 취했다.

우뚝 서 있거나 누워있는 것들의 인위는 이내 자연과 일치가 되어, 천년의 사랑이 되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가슴으로 통하는 작은 갈색 눈에 기억된다.

제아무리 날렵한 지능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바람의 시간은 속성으로 흉내 낼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그것의 속셈은, 물과 달과 해맑은 태양이 버무려져 여러 날이 지나서야 각각의 사물에 스며들어 모습을 들어 내는데

과연, 장관이다.

온갖 사물들이 이것에 노출되면 맞춤형장을 하듯 각자의 정령들을 품는다.

바람과 사물이 만나는 지점에 물과 정확한 온도의 태양이 중매를 서고, 아주 조금의 인위적인 신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소리의 겹겹,

어떤 것은 사물의 꺾데기에 불리고 쌓여 거대한 몸뚱이로 아주 미미한 본질을 숨기고, 어떤 것은 제 살을 깎이고 깎여 날것인 채로의 향홀한 본질을 직접 들여다보게 한다. 가끔은 거북하고 민망하지만 인간에게 직관적 깨달음을 주는 힘이 날것에 감춰져 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 나의 드라마 속 기억을 더듬이 삼아 토해낸다.
화면에 보이는 거라곤 나무하나 석불 하나.

허나, 그들과 한 몸이 된 온갖 바람의 소리와 흙의 냄새들..., 언젠가는 바다였을지 모를 물의 흔적까지 갖췄다.

화면의 여백엔 어느새 사랑이 열매 되어 숨 쉬고 있다.

2018년2월 時詩look 에서 김 상연